

부족한 기자여서 가능했던 용기



news 1
KOREA

손엄지 기자



달갈후라이가 올라간 비빔밥(챗GPT 생성 이미지)

수습 시절을 생각하면 일주일 중 반은

- 울면서 집에 갔고, 반은 겨우 울지 않으며 돌아갔다. 퇴근 길에 부산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엄마 목소리만 들으면 겨우 가뒤흔던 눈물샘이 터질 거 같아 회식 중이라는 말로 전화를 돌린 적도 있다. 그렇게 수습 생활은 매일 내 부족함에 몸서리치며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이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일을 참 못했다. 그래도 부장은 열심히 나를 키웠다. 눈물 속 빠지게 혼낸 날에도 당직하러 회사에 들어가니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를 특별히 추가했다며 싹싹 긁어먹으라고 했다. 어떻게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부장도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부장은 내게 “누구든 인터뷰

를 해보라”며 미션을 줬다. 어차피 내가 하는 발제는 큰 의미가 없고, 겨우 기사를 쓴다한들 기사 로직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들은 말을 정리해서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부도 많이 하라고 했다.

미션은 받았지만 방법은 알지 못했다. 부장에게 “인터뷰를 어떻게 잡죠?”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떠오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업 홍보팀에게 어떤 인터뷰라도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잡은 의미없는 인터뷰 기사를 부장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당시 매일경제, 한국경제 기사를 매일 같이 보고 필사를 하던 시기였다. 여기서 인터뷰라고 하면 보통 최고경영자(CEO)

[CEO인터뷰]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 "주식투자는 동업이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 | 2017-04-10 15:08:02



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대표

증권부에 출입을 한 지 3개월 만에 기사 전면에 실리는 CEO 인터뷰를 썼다.

인터뷰가 많았다. 그래서 나도 대표 인터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니 공시사이트에 들어가 회사 이름을 검색한 후 IR 부서에 연락했다. “OO 기자인데요. 대표님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분과 연락을 하면 될까요”라고 물어봤다. 매일 퇴근하기 전 5곳 정도에 전화를 하면 1곳 정도는 콜백이 왔다.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니 다

른 회사 선배들도 내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기사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다. 어느 순간부턴 아침 지면 회의에서부터 내 기사 지면이 잡혔다. 이전에는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부장이 지면에 넣을지 말지를 판단했었다. 인정을 받으니 신이나 나는 좀 더 잘해내고 싶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친한 기자 선배를 통해 유명한 자산운용사 대표와 점심을 하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회사명 회사명/종목코드 입력 ENGLISH

최근공시 공시서류검색 기업개황 공모정보 OpenDART 공시업무·제도 DART 소개

최근공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법인

전체

5% · 임원보고

펀드공시

My 공시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 225건 (2025년 06월 30일)

시간 회사명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18:01	소독스	[기재장정]주요사항보고서(전원사채권발행결정)	소독스	2025.06.30	
18:01	에스디생명공학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코스닥시장본부	2025.06.30	코
18:00	플루토스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플루토스	2025.06.30	
17:59	HLB제넥스	[기재장정]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HLB제넥스	2025.06.30	코
17:59	디에이치엑스컴퍼니	[기재장정]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디에이치엑스컴...	2025.06.30	

매일 마감 후 전자공시 Dart를 열고 회사에 전화를 돌렸다.

게 됐다. 나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말로 부탁하면 들어줄 거 같지 않아 편지를 쓰기로 했다. 점심 미팅 있기 전날 문구점에 들러 예쁜 분홍색 편지지를 샀다. 종이 위에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묻고 싶은 질문들을 적었다.

밥을 먹으면서 편지를 언제 건넬까 고민을 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웃지도 못했다. 대표가 차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급게 접은 분홍색 편지를 전달했다. 지금 생각하면 20대 사회 초년생이기에 할 수 있는 도발이었다. 아니, 도발이라기엔 내 얼굴이 너무 빨갰다. 대표는 당황스럽게 편지를 받아가셨다.

기자실로 돌아오는 길에 창피함에 눈을 몇 번이나 짙은 감았다. 담백하게 문자

나 전화로 할 걸 그랬다고 수십번 생각했다. 괜히 말도 안 되는 인터뷰 욕심을 낸 거 같아 후회도 했다. 대뜸 인터뷰를 부탁한 게 무례한 것 같다는 생각도 그제야 들었다.

대표가 회사에 도착했을 법한 시간에 대표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대표는 이 래저래 당장 인터뷰를 잡을 시간을 없을 거 같다고 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의식적으로 더 밝게 말했다. 대표는 괜찮으면 지금 전화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 그렇게 기자가 된 지 6개월도 안 된 초년생이 자산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인터뷰 기사는 다음날 지면 톱에 걸렸다.

기사를 본 부장은 전화를 걸어 “너 혼자 인터뷰를 한 거냐”고 물었고 나는 “그



서점에 가서 예쁜 분홍색 편지지를 골랐다.

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장은 “잘했네”라고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울 뻔 했다. 엄청 대단한 단독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사회 초년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10년차가 되니 그때의 열정이 그리울 때도 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다. 기사는 더 잘 쓰고, 중요한 이슈도 금방 따라가지만 모든 게 낯설고 벽차서 온몸으로 부딪혀보던 무모함이 지금은 없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후배들에게 방법

을 가르치기보다 숙제를 내주려고 한다.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진심과 노력은 결국 어디서든 닿는다. 분홍 편지를 쓰면 대표 단독 인터뷰를 딸 수 있다고 누가 알려줄 수 있나. 꽃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피어난다. 🌸

뉴스1 손엄지 기자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길마다 봤던 여의도 전경